



미·중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과  
한반도 통일



포커스①

미·중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과 한반도 통일

강해진 중국은 거침이 없다. 지난 3월 29일 폐막한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온 '아시아신 안전 개념'을 보면 실감이 난다...

[더보기](#)



포커스②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의 협력 왜 필요한가



통일 돋보기

한눈에 보는 통일 편익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을 염원하는 하나의 하모니  
'청춘합창단'



통일Talk

"탈북아동을 위한  
행복그물망 엮어가요"



행복한 동행

책 바구니에  
통일 생각도 담아가세요



골든벨, 실전 팀

통일골든벨 & 중학생역사퀴즈왕  
'이렇게 공부했다'



Today 남북

북한의 어머니 날스승의 날  
생일-결혼 선물은?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꼬부랑 영어,  
아예 통째로 외웠어요”



Nuac News

경북 포항시협의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열어



느낌 있는 여행

잘 있지 말아요, 내 그리운...  
충청남도 서산



통일 웹툰

전 세계 야구인의 꿈의 리그,  
통일한국 프로야구



통일 레시피

북한의 최고 인기음식  
'속도전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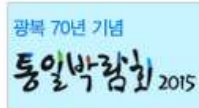
이벤트 당선작

통일 1년 된 광복절의 하루



이벤트

1. 다섯 단어로 말해요!
2. 역사통일 골든벨 퀴즈





## 미·중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과 한반도 통일

홍우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해진 중국은 거침이 없다. 지난 3월 29일 폐막한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온 '아시아 신안전 개념'을 보면 실감이 난다. 아시아 국가가 제3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공동의 안전보장에 해가 된다는 개념이다.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여기에 미국도 물러서질 않는다. '힘과 강제력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5월초 발표한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 중의 하나다. 당연히 중국이 들으라는 소리다.

사실 미-중간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를 만들려는 경쟁이다. 남이 만든 질서보다 자신이 만든 질서에서 이득을 챙기기가 쉽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벌여 자신의 주도로 돈을 풀고 잔치를 열 계획이다. 이 잔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에겐 크나큰 유혹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이를 위한 중국의 첫 걸음이다.

중국 반대편에선 미국이 세를 규합하고 있다. 남미대륙에서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앞에 내세웠다. TPP가 완성되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 하다보니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은 세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등이 동참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지려면 이들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실은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博鳌) 포럼 2015년 연차총회 공식 개막식에서 “아시아가 문명 공동체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18년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도록 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바란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거리를 두라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미국은 일본과 군사-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선택을 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헌법을 유지하기를 기대했지만,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일본은 이참에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 상대방을 자신의 질서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립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중국이 주도하는 AIIIB에 가입하여 중국의 주도를 막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또한 중국의 행동반경을 TPP안에 가두려고 중국의 가입을 유도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을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 밖으로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바람과 현실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놔 놓고 지켜볼 수만도 없다. 그렇다고 헤쳐 나갈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치가 않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다. 사실 순위로 따지면 중국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교역국이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미·일 간의 총교역량의 1/4 수준이 중국과의 총교역량이다.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서 중국과의 교역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립이라는 선택을 했다. 서로 내칠 수는 없으면서도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 상대방을 자신의 질서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립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중국이 주도하는 AIIIB에 가입하여 중국의 주도를 막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또한 중국의 행동반경을 TPP안에 가두려고 중국의 가입을 유도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을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 밖으로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정성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통일이 우리 외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미·중 양국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숙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할 만한 사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외교적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국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도 사람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이 다투는데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잡는 처세는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균형만 잡다보면 서로 다투는 사람들은 나를 야속하게 불지도 모른다. 또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꺼릴 수 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모두와 항상 사이좋게만 지내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다.

통일 이전에 독일은 통일외교를 걸로 내세우지 않았다.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차분히 우리의 외교적 과제를 풀어가고 결국 통일을 이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의 협력 왜 필요한가 2015 한·중 평화통일포럼

“한중 양국은 평화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하며, 그 첫걸음은 북한경제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3성 지역이 통일 한반도와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의 연결고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중)”

### “한반도 통일과 북한 발전에 중국 역할 중요”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5 한·중 평화통일포럼’이 4월 22일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 엔지(延吉)시에서 개최됐다. 중국 선양협의회 주관,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중국 동북지역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자문위원, 동포대표, 연변대 및 연변과기대 학생 및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중 양국의 전문가 13명이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의 협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발표와 토론을 전개했다.

포럼에서는 김성웅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신봉섭 주선양총영사 및 이훈복 중국부의장, 진창이 연변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한반도 경제 변화 : 평가와 전망’,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 : 방향과 과제’ 등 1, 2세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한중협력의 방향’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변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중국이 추진한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귀감이 되었고 더이상 북한도 개혁 개방을 외면할 수 없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한다면 연 15%를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경대 수석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설명한 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대외 교역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동북3성지역 동포들이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1세션

### 한반도 정세 변화 : 평가와 전망

경재호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 :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 분석,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두만강개발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북중관계, 특수성·정상성 병존 전망



황지환 교수는 “2015년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무관심으로부터의 탈피’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은 기존의 대외 전략적 프레임에 더욱 공세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남북관계에 악순환의 고리를 재점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통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 외교는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공외교 아젠다이므로 다양한 통일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저(金哲) 요녕사회과학원장은 “북중관계의 경우 정상적인 관계로 조정되는 진통을 겪고 있으나, 이 과정 속에서 전통적 우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북중관계는 현재 회복기로 진입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중관계의 핵심 장애물은 국제정세와 같은 외부문제 및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로, 북중 양국의 특수성과 정상성의 병존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과 AIB 설립 등은 북중관계 발전에 무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남북중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 성장의 새 거점 마련해야

북한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남북중 간의 협력모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만하이펑(滿海峰) 요동학원 조선반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개혁 움직임이 시작된 후, 농업 분조관리제 생산모델을 조정하고 있고 기업 경영권한이 중앙에서 기업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 경제모델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주변외교 방침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므로, 북한의 경제발전은 ‘남북중 경제 무역권’을 형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제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한 경제가 시장에 편입될 때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남한과 북한, 중국 3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상생의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이에 "남·북·중이 참여하는 국제개발 경제벨트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AIIB 창립 후 첫 비즈니스 모델로 북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조직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만강 지역 개발, 동북아 각국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리중린(李中林) 연변대 경제학원관리원 원장과 최민자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두만강 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리중린 교수는 "1991년 이래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인프라 시설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여전히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은 북한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큰 지역이며, 러시아극동지역 발전계획, 한국 동해연안지역 개발, 일본 몽골 등 주변국가 발전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각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자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지돼 왔지만,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넘어선 동북아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며 "두만강 지역에 유엔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는 '환경생태공동체' 이외에도 북·중·러 합의하에 무비자, 공동화폐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지대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2세션

###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 : 방향과 과제

2세션은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및 한중관계 전망 등이 논의됐다.



##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여지 충분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발전중인 강대국’에서 ‘대륙-해양 국가’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은 동북아의 거점국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중국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은 “한중 간에는 주로 북핵과 북한 문제, 한미동맹, 지역안보체제 등 한중관계 외부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양국은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당

분간 미중관계가 협력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바디엔쥬(巴殿君)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장은 “동북아는 세계 주요 대국이 집중돼 있고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갈등이 공존해 이웃국가의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동맹에 있어서도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발전 방식 및 역사를 존중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편협한 개발 개념을 초월한 균형 잡힌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반도 통일은 한중의 미래 비전이자 이익’ 인식 공유 필요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한국에선 중국을 통일의 주요 파트너로 삼아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은 북한 난민 대거 유입, 미중간 긴장 고조,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 고조 등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주변 주요 국가들이 얼마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통일 비전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대내외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은 공동의 미래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파오동심(朴東勳)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은 대박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일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감수할 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중협력 방안' 종합토론

끝으로, 이희욱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중협력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 우려 등을 짚어내고 신뢰를 쌓아가며 실질적으로 협력관계를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일 연변대 교수는 "한국 학자들은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학자들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의 적인지 우군인지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호간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규 교수는 "중국의 꿈은 세계적으로 융성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의 꿈은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통일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상대방의 우려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교수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인 반면, 한국에게는 '통일 자체'가 중요하며,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확보해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중이 실질적으로 협력관계를 내실화해 나갈 수 있는 이슈는 북한 이슈 밖에 없으며, 트랙2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진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통일의 방식과 관련, 남북간이 상호 경쟁 내지는 압박을 통해 통일을 이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개혁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지 또는 개방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받아주지 않는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욱 교수는 "금년 하반기에도 한반도 정세 변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식과 관련, 대화가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1)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지대(Silk Road Economic Belt)와 해상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도로와 바닷길로 연결함으로써 인근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남북한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철조망에 갇힌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을 향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천만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참고 : 통일연구원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



평균 연령 64세. 백발이 성성한 단원들이 동그랗게 입을 모아 화음을 맞추는 순간 노래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메시지가 된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랫말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다. 하지만 박자를 맞추는 것도, 화음을 모으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젊은 시절 나름 노래 좀 했다는 자부심과 달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목소리는 이제 뜻대로 음을 짚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서툴지만 정성껏 모은 목소리들, 그 소리들이 모여 세상 그 어떤 선율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 진심을 담은 노래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통해 지나온 삶에 대한 담담한 회고로 큰 울림을 줬던 '청춘합창단'이 이번엔 유엔본부에서 평화통일을 노래한다.



### 유엔(UN) 본부에 올려 퍼질 평화통일의 메시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방송이 끝난 지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중들의 관심은 잊혀 졌지만, 노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합창단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부산, 김해, 춘천, 인천 등 전국에서 올라온 마흔 여덟 명의 합창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음을 맞추던 날. 대통령 취임식부터 교도소까지, 듣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떤 무대든 기꺼이 소리를 맞춰던 합창단원들이지만 최근엔 더 신이 나 있다. 오는 6월 15일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당시 합창단에 합류하게 된 일을 두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던 베이스 파트의 박석주 부단장은 이번 유엔공연의 성사에 대해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유엔공연을 준비한 기간은 꽤 오래됐어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통일의 의미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저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꼭 유엔에서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죠.”



## 통일 의미에 대해 알리는 것이 우리 세대의 통일준비

무엇보다, 2시간이 채 넘지 않는 공연시간이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이 단원들의 각오다.

특히 김현실 소프라노 파트장은 노래를 통해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벌써 한국전쟁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세대와 저희 자식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그 중간세대인 우리의 역할이 크지 않겠어요?” 우연히 오르는 무대가 아니다. 대사관과 유엔본부로 보낸 편지만 수 십 통.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고, 그만 포기하라고도 했지만 이제는 통일의 의미조차 의심하는 이 땅의 청년세대를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어렵게 성사된 무대. 당연히 기대만큼 책임감 역시 무겁게 느낀다. 남들은 흔한 아마추어 합창단이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원들은 프로 못지않은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스스로의 실력에 타협한 적이 없다. 노래를 향한 열정 또한 젊은 합창단 못지않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유엔공연이 중요한 무대인만큼 프로란 생각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단원들 중에는 70이 훌쩍 넘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보니 사실 젊은 사람만큼 소리에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린 우리의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말은 안통할지 모르지만 진심을 담아 노래하다 보면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 줄 거라고 믿거든요.” 진심은 통한다. 테너 남종연 파트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만은 꼭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 ‘함께’라는 즐거움에 대하여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합창단원 모두가 함께 하기에 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단원들의 한 목소리다.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이 큰 만큼 함께 노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더 없이 즐겁고 감사하다는 사람들. 그런데 왜 하필 합창일까? 사실 지금 활동 중인 합창단원들은 방송 직후 민간합창단으로 재창단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단원들 대부분이 평소 주변으로부터 노래 좀 한다는 소리를 곧잘 들던 이들이다. 그런데 합창은 독창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보다 합창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남자의 자격 방송중



“달리기 중에 2인3각 경기란 게 있잖아요. 발을 묶어서 같이 달리는 경기요. 합창은 그렇게 열 명, 스무 명이 한발씩 묶고 달리는 경기라고 보면 되요.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혼자 욕심내면 모두 넘어지고 말아요. 한 발, 한 발, 서로의 속도에 맞춰야 하니까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죠. 하지만 모두 ‘함께’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낼 때의 감동 역시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테너 파트의 김종목 씨가 오늘도 화음을 맞추는 이유다. 분명 나 혼자 돋보이는 것이 좋다고, 빨리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함께 일 때 더 많이 웃고, 웃었을 수 있었음을.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합창단에 합류했다는 알토 김연수 씨는 여고시절 손꼽히던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세종문화회관 전신인 시민회관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환갑이 넘은 나이에 노래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내)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그땐 독창이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목소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더욱이 환갑이 넘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덕분에 함께 노래를 한다는 즐거움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은 독창보다 합창이 더 좋아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김현실 파트장과 김연수 씨는 송의여고 시절 함께 합창단 활동을 했던 단짝. 방송을 통해 40년 만에 해후한 두 사람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두 손 꼭 잡고 매주 연습실을 함께 찾는다.

## 합창과 통일, 서로 비슷해요

세컨베이스 파트의 박창수 씨 역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 낼 때의 전율은 솔리스트들은 절대 알지 못할 감동이라며 합창의 즐거움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자랑한다. 또 생각해보면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의 하모니를 완성해가는 합창과 통일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다고 말한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맞춰 나갈 때 비로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합창이야말로 통일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웃는다.



## 우리의 목소리가 통일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노년의 나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노래를 통한 통일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는 단원들에게 통일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사절단이란 마음이 있어요. 이번 유엔공연을 시작으로 언젠가는 평양에서도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담아 공연할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의 노래가 통일의 아주 작은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해요. 통일이 되면 부모님들은 고향 땅을 밟으실 수 있고, 우리는 자랑스런 통일의 역사를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게 되겠죠.”

그리움이란 그리움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서로를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기다림이란 기다림이라는 이름에  
소망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누군갈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이루어져 가는 거기에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합창곡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며'의 가사처럼 통일 역시 기억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청춘합창단'의 통일메시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한편, '청춘합창단'은 UN본부 외에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야외공연과 뉴욕, 뉴저지 등에서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위문 공연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위한 경비는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부 받고 있다.

<글/사진 권혜리>

## 합창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출생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체감하며 성장한 '청춘합창단'의 권대욱 단장(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 대표)에게도 이번 공연은 특별하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경영인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기성세대이기도 한 그는 통일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라고 말한다.

“멀리 하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섬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통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유엔 공연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우리 합창단이 적지 않은 나이에 태평양 너머의 무대에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가 한 번이라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준다면 그래서 그 생각들이 모여 통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보람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노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권대욱 단장



## “탈북아동을 위한 행복그물망 엮어가요”

선생님, 남북한 부모, 탈북학생 멘토-멘티 토크

〈서산 차동초등학교〉

탈북아동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편견의 모서리에 긁혀 상처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행복그물망을 짜고 있는 차동초등학교. 탈북학생들을 가슴으로 보듬는 교사,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의 엄마들, 그리고 멘토 대학생과 멘티 탈북학생이 이곳 차동초등학교에 모여 작은 통일토크를 열었다.

### • 5월 통일토크 참가자 소개 •

심상옥  
남한학생 엄마



김금석  
차동초 졸업, 중학생



서정숙  
차동초 선생님



조은주  
탈북학생 엄마



김혜지  
멘토 대학생





## 북한엄마 남한엄마 “자식 키우는 맘은 다 마찬가지”

**서정숙 선생님(이하 선생님)▶** 차동초등학교는 2011년 탈북학생이 처음 입학했고 현재 일곱 명이 재학 중인데 여섯 명이 중국에서, 한 명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그동안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탈북아이들의 멘토링을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탈북학생-대학생 멘토링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탈북학생들을 1대1로 돌봐주는 ‘제자맘두드림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탈북 학부모와 남한 학부모가 같이 어울리는 ‘친친부모동아리(이하 동아리)’도 결성돼 남북한 학부모들이 서로 친하게 교류하며 지내고 있어요.

**심상옥(이하 남한 엄마)▶** 저는 원래 학교 사서도우미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 취지가 좋아 선뜻 응하게 됐어요. 돕는다는 생각 보다는, 함께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문화체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탈북 과정이나 북한생활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는데, 탈북 학부모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묻지 못하고 주로 육아나 생활 등 현실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탈북 학부모 한 분이 결혼 적령기의 여동생과 떨어져 지내며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동네의 건실한 청년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웃음).

**조은주(이하 북한 엄마, 중한이 엄마)▶** 5년 전 제가 먼저 한국에 왔고 작년에 아이를 데려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이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 애쓰고 중국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며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꼭 입학을 시키고 싶었어요. 남한 학교는 처음 와봤는데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죠. 그날 동아리를 소개받았는데 이 활동에 참가하면 제 아이도 잘 적응할 것 같았어요. 중한이는 지금 자기가 중국에서 왔다는 콤플렉스 없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 학교 가는 걸 재미있어 해요. 저는 저대로 어머니,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동아리 활동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부모들을 모시고 워터파크에 갔을 때였어요. 쉬는 날이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셨는데, 다 같이 수영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민낯이어서 쑥스럽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몰라요.

**북한 엄마▶** 워터파크는 처음 가봤어요. 그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남한 어머니들이나 우리나라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라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학교를 어딘가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 아빠에게도 멘토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지(대학생 멘토, 한서대 무인항공기학과 2학년) ▶ 고등학교 때 다문화 봉사 동아리를 했고, 마침 작년에 차동초 탈북학생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석이와 만났어요. 학교가 태안 공섬에 있다 보니 주말에만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공부보다는 금석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주려고 했어요. 특히 해미읍성 축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파전도 부쳐 먹고 옥사 체험도 하면서 이들 연속 만났더니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금석이(멘티, 석림중1) ▶ 맨 처음 언니랑 만났을 때 몇 번 만나고 나중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어요. 대학생 언니랑 영화도 보고, 별도 관찰하고, 염전에도 가고 공부도 했어요.

해지 ▶ 금석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대서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황했던 게 중국어로 된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웃음). 한글로 된 책은 읽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고 잘 모르는 단어는 저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석이 ▶ 저희 아빠도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한국말을 아예 몰라요. 엄마가 저보고 아빠한테 가르쳐 드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안 배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느니 컴퓨터로 배우겠대요. 아빠에게도 해지 언니처럼 대학생 멘토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엄마의 참여가 아이의 자신감과 인성을 높인다

선생님 ▶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한 탈북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웃과의 교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탈북하신 분들은 대개 경찰이나 상담사 등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데 남북한엄마 동아리에서는 서로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표정도 달라진 걸 느껴요. 자신감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엄마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가 봐요.



**북한 엄마**▶ 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중한이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돼서 말도 서툴고 친구들과의 소통도 어려웠을 때였는데, 학교에서 한여름에 한국민속촌 체험을 갔고 너무 더운 날이라 제가 함께 체험을 갔던 아이, 학부모 7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줬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난 중한이는 하나 더 사달라며 졸랐지만 사주지 않았어요. 저녁에 아이가 묻더라고요. 왜 엄마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다 사줘야 하나고, 난 더 먹고 싶었는데 왜 사주지 않았냐고요. 아이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체험학습이 있을 때 다른 아이들 엄마가 오시지 못 한 것처럼 네 엄마도 못 올 수 있어. 그때 너만 아이스크림을 못 먹으면 좋아?'라고요. 그 뒤부터는 뭘 사주면 중한이가 항상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부터 중한이의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더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학교 가기 싫어했던 금석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2년 반 전 금석이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한국에 온지 한 달이 됐는데 집밖에 단 한 번도 안 나갔다,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며 엄마가 하소연을 했어요. 금석이는 오전 열시에 학교에 와서 무표정한 얼굴로 오후 두시까지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금석이**▶ 그때는 학교에 다니기 싫었어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오기 싫었던 거예요.



**선생님**▶ 한국어도 한국어지만, 중국에 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왜 한국에 데려와서 고생시키냐며 금석이가 엄마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금석이에게 물일 수 있는 자원들은 다 붙여줬어요. 한국어강사, 기초학습도우미, 보조교사들까지 모두 불러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줬더니 차츰 한국말도 늘고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6학년 때 담임을 하면서 금석이의 제자맘두드림 멘토가 돼서 함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차등초등학교는 매년 북한 어린이돕기 알뜰시장을 여는데 학생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난전처럼 판 다음 이를 통일 기금으로 내는 행사예요. 그런데 금석이가 스케치북과 연필, 지우개를 가져온 거예요. 너 뭐 파니? 했더니 애들 얼굴을 그려서 팔겠대요. 깜짝 놀랐죠. 물론 잘 그리진 못했어요(웃음).



**금석이**▶ 남자 친구가 같이 그림을 그려서 팔자고 해서 한 건데, 애들 반응이 좋아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보기만 하고 사진 안던데요(웃음).



**헤지** ▶ 처음 멘토링 결연식에서 만났을 때 서로 엄청 낯을 가렸어요. 다른 팀은 활발하게 막 놀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 둘은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금석이는 문자를 보내도 네, 네라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곤 했는데 몇 번 만나고 나니 '이런 거 해 보고 싶다'고도 하고 자기 감정표현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은 금석이가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천문기상과학관에 갔는데 구름이 껴서 안보였어요. 반짝반짝한 별을 상상하고 있던 금석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재미있었어?' 물었더니 처음으로 '그냥 그랬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씩 마음을 여는구나 생각했어요.



## 탈북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들의 세상은...

**북한 엄마** ▶ 이곳에는 선생님의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주말에 바닷가에 가서 갯벌체험을 시켰는데 중환이가 중국에서 자라다보니 바다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바닷가에 처음 와 본다고 하니깐 함께 가신 분이 '너희 엄마 나쁘다'고 했는데, 애가 '아니예요. 우리 엄마 좋은 엄마예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서정숙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중환아 너는 좋은 어머니를 뒀서 참 좋겠다. 이렇게 이쁜 옷도 사주시고'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라는 게 애들에게 너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 지금으로서 다른 바람은 없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편견을 갖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이나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남한 엄마** ▶ 저는 남북한 엄마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한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간의 작은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금석이** ▶ 초등학교 때는 체험학습을 많이 다녔는데 중학교 가보니까 별로 없어요. 멘토 언니오빠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커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는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문만 가르쳐요. 중국어도 과목으로 배운다면 더 재미있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지** ▶ 초등학생은 체험활동이 많이 이뤄지지만 중고등학교는 고입, 대입을 위해 공부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나이대의 탈북청소년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은 남한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주말만이라도 이런 학생들이 문화체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통일이란 게 감성적으로는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남북간 대화 이런 걸 일반 국민들이 할 순 없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안에서 남북한 주민간 더 많이 교류하고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 처음 탈북학생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아이 눈이 빨개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급성소아당뇨였어요. 당뇨수치가 확 올라가 눈이 빨개졌던 거죠.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엄마는 공장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됐고 아빠는 벽돌공장에 다닌다고 해서 서산 내 벽돌공장에 전부 전화를 걸어 수소문을 했어요. 겨우 찾았는데 공장 관계자가 아이 아빠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오셨는데 한국어를 모르니 의사에게 뭐가 문제인지 묻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 아이가 만약 그날 집에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단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했어요. 애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 잘해주는 것, 바로 그게 필요하단 걸 느꼈어요. 또 한 가지,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면, 한 개 학교 정도는 우리학교처럼 탈북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크에 참가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일을 위한 첫 걸음 아닐까요?

<글:기자희 / 사진: 나병필>

## “201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김금석 학생 멘토링대상 수기



### 대학생 언니는 부모님같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한국에 갈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라오스 땅에서 이 생각만 하면서 걷고 넘어고, 걸다가 넘어지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 있는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워 한 달 동안 아파트에만 있었습니다. 처음 차동초등학교에 간 날도 엄마가 미워 한마디 대답도 안했습니다 (...중략...)

그러다가 대학생 언니를 만났습니다...대학생 언니랑 영화도 보고, 별을 관찰하고, 해미읍성에 가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생 언니랑 같이 있을 때에는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는 그 때 제일 유명한 <명량>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영화관에 갔습니다. 처음 영화관에 갔던 나는 영화관에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영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대학생 언니가 이것은 생일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이 뭐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에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동했습니다...대학생 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못 물어본 말을 대학생 언니에게 물어 봤습니다. 좋은 언니입니다...몇 달 전에 중국에 있던 아빠도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항상 아빠가 오면 대학생 언니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대학생 언니랑 있었던 일을 중국어로 말하면 아빠는 계속 놀랐습니다. 나는 아빠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학생 언니 때문에 행복해진 것처럼 우리 아빠도 대학생 언니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락)



송낙인 서산시협의회장,

북한이탈주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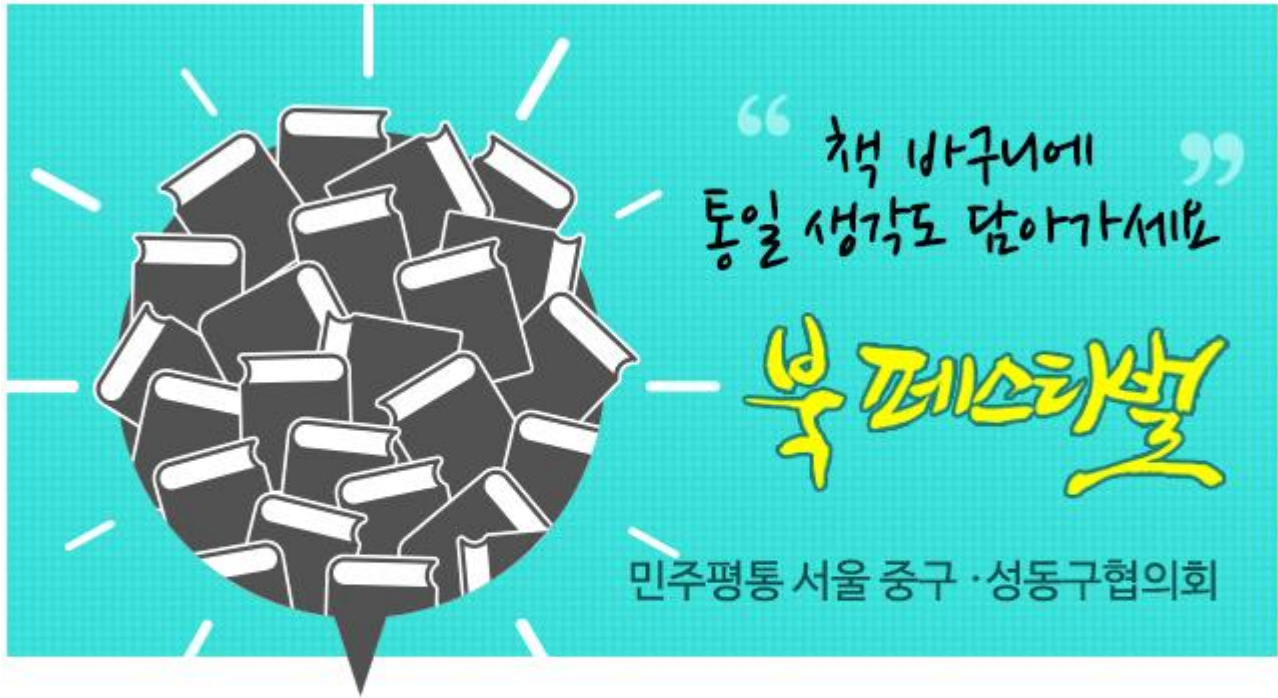
서산에 오고 싶게 만들래요

1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서산. 민주평통 서산협의회는 초·중·고 탈북학생, 탈북 대학생들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성금 지원, 의료 및 취업 지원, 멘토링 등을 통해 탈북민이 서산에 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산시협의회 송낙인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남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평소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겐 남한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줘야 해요. 특히 북한이탈학생들을 보면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데,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믿음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탈북민과 북한인권청년단체에게 지원하는 '먼저 온 통일과 어깨동무하기 북페스티벌'이 지난 5월 초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안착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통일을 향한 염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작은 통일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책도 읽고 통일도 생각하는 북페스티벌

서울 중구협의회와 성동구협의회는 지난 5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5일간 총무아트홀 광장과 왕십리역 광장에서 '먼저 온 통일과 어깨동무하기 북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했다. 성동구협의회는 북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행사로 교보문고와 대행기관인 성동구청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중구협의회도 함께 했다.



이번 북페스티벌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한 어깨동무 멘토링카드(도서구입카드)도서구입카드 덕인지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는 탈북민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아름(가명)이에게 무슨 책을 샀는지 물었더니 예닐곱 권의 책이 든 쇼핑백을 열어 보여주며 책 이름을 줄줄이 알려준다.

“겨울왕국 책은 내 것, 바보온달도 내 거, 종이접기 책도 내 거. 요리 책은 엄마 것. 엄마 것도 샀어요.”

종이접기 책 내용이 몹시 궁금했는지 자탕을 하다 말고 그 자리에 펼쳐놓고 넘겨다 본다. 아름이와 함께 책을 고르던 엄마는 “이런 행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좋다”면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샀다”고 말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북페스티벌 행사장에는 자녀를 동반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퇴근길에 들렀다는 한 시민은 “탈북민을 돕는 행사이고 책이나 물건도 좋으니까 많은 시민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며 “이 수익금이 탈북민에게 도움이 돼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매대 위에 놓인 물건을 만져보려고 까치발을 하던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의 하원시간을 기다리던 한 엄마도 어린이용 책을 고르고 있었다.

“미리 알고 온 건 아니고 지나가다 본 건데 애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익금을 탈북민 정착에 쓰신다고 하니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구입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책도 보여주고 탈북친구들도 돕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 지나가던 시민, 즉석에서 '현물 기부' 결정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통일과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책 진열대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무학여고 3학년 학생들에게 또래의 북한아가 남한에 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었더니 “북한친구가 우리 학교에 오면 어색해 하지 않게 잘 알려주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미니 북을 사서 가슴에 안고 나오던 한 남자 대학생은 “유명한 작품이지만 읽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어보려고 샀다”며 씩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이 학생은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적응하기 힘들실 텐데 이분들을 돕는다니 좋은 행사 같다”고 말하면서도 “통일이 빨리 이뤄지면 좋겠지만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를 둔 한 선생님은 이 행사가 북한이탈주민돕기를 넘어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책 구매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니 기쁘고 한번쯤 탈북민들의 애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통일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왕십리역 앞 광장에서 펼쳐진 성동구 행사에서는 북페스티벌이 아닌 '육(肉)페스티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마장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한 시민이 우연히 북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는데, 행사 취지를 듣고는 돼지고기를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 이 시민은 "전달식도 필요 없고 기부자도 알릴 필요 없이 내일 돼지고기 30kg을 보낼 테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더니 정말로 다음날 고기를 보내왔다.



## 통일 또래 친구 맺기 접수, 첫날에 정원 모두 모집

행사기간 중에는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또래 친구 맺기' 신청 접수도 진행됐다. 중구, 성동구 협의회는 남한학생들과 탈북학생들을 또래친구로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보거나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동구도 중구도 목표한 20명, 12명 정원을 첫날 모두 채웠다.

한편 중구협의회에서는 4일 또래친구 아이들이 북페스티벌에 놀러왔다. 저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 계단에 화단에 앉아 읽기도 하고 서로 고른 책을 보여주며 재잘거리고 있었다. 아직은 남북한 친구들이 서로 데면데면 하지만 내년쯤엔 아마 이 너른 마당에서 봄별을 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뛰어놀고 있지 않을까.



## 탈북 대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해

행사 첫날, 성동구협의회 북페스티벌 개막식에는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북한청년인권단체 나우(NAUH) 관계자들과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장학금과 어깨동무 멘토링카드 전달식도 열렸다.



▲ 나우 지성호 회장

나우 지성호 회장은 "나우의 대학생 고등학생 20여명에게 도서카드를 바꿔서 나눠줄 계획"이라며 "책을 통해 통일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우는 오는 5월 29일 동대문구협의회와 청량리역광장에서 장마당 재연행사를 열 계획이며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북한인권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활동을 자주 펼칠 계획이다.

이날 100만원의 도서구입카드를 받은 한승연(가명) 학생은 "혼자 남한으로 온, 책 욕심이 많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공부를 하다보면 책 값이 의외로 부담스러운데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글/사진. 기자희>

## 오늘 행사 이렇게 참여했어요!

### 정종철 성동구협의회장

자문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학금부터 의료지원, 물품지원, 단합대회 등의 이슈를 만들어 관내 북한이탈주민 106명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어서 취창업 교육도 시키고 있으며, 나우를 통해서 미국에 탈북유학생들의 유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빨리 통일의 열매를 맺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의 선두주자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자주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설렁탕 한그릇 먹으며 나누는 대화로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재호 성동경찰서장

오늘 받은 도서카드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정보지식을 습득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편견과 차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한주민들이 먼저 그분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평통이나 경찰, 보안협력위원회에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려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회장과 노재호 서장

## 이기선 서울 중구협의회장

이번 북페스티벌은 수익금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일 기부문화를 만들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통일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북한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와 협력하여 지역의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바탕으로 작은 통일들이 모여서 통일 한반도를 앞당기는 통일꽃너지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 이기선 회장과 양우진 상임위원

## 양우진 서울중앙클리닉 원장(상임위원)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이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더 큰 행사로 효율적인 어깨동무하기가 되길 바래요. 북한이탈주민, 우리 형제들이 잘 정착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 김세원 카톨릭대 교수(상임위원)

70년간 제도적 이념적 차이가 서로의 문화를 많이 바꿔 놔는데 문화란 천천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장차 있을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을 더 잘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준비하면 통일이 이뤄질 겁니다. 저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의 '총균쇠'라는 책을 샀어요. 방학 때 도서관에서 빌려볼까 하다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 잠만 했어요.



## 송용순 한국부인회 이사(자문위원, 95세)



6.25때 가족과 함께 월남을 했는데 아직 동생들이 북한에 있어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동생들을 만나지...(눈물) 저처럼 탈북민들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탈북민들에겐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잖아요.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통일을 기다리며 꼭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래요.

# 통일골든벨 & 중학생역사퀴즈왕 '이렇게 공부했다'

##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대회 실전 팁!



5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중학생역사퀴즈왕 시·도 본선대회, 5월 14일 이미 인천에서 첫 스타트를 끊은 역사·통일골든벨 시·도 본선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왕 참가할 거, 최종 라운드까지 살아남아 골든벨을 울리길 바라는 마음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이에 지난해 본선 최다 진출, 최다 입상 학교 선생님들께 비법을 물어봤다.

### 실전팁 도움주신 선생님들

#### ♥ 중학교

포항여자중학교 김천자, 상도중학교 김정민, 탐라중학교 김란영,  
진주동명중학교 김경남, 서일중학교 유양순

#### ♥ 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정지영, 배영고등학교 강혜지,  
오현고등학교 양원철, 경주고등학교곽경록



## ☆☆ tip1. 참가

# 역사·통일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은 꼭 참가하세요!

대부분 자율적으로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만, 역사·통일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역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역사·통일 관련 동아리 회원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로 출전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 결국 가위 바위 보로 참가자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교(서일중)도 있지만, 역사·통일에 대해 기본기를 갖춘 학생들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1학년 보다는 역사교과를 거의 배운 2~3학년 학생들이, 전년도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많다.



동아리 단체 참가 학생들의 경우 열의가 높고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배영고 강혜지 선생님은 "역사·통일 관련 동아리 학생의 경우 사전 준비도 충실하고 성과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오현고와 같이 교내대회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양원철 선생님은 "학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 경우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교내대회에서 상을 타면 동기부여가 돼서 학생들이 역사공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 tip2. 교재

# 민주평통 기본교재만으로 충분하다?

민주평통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기본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다(바로가기 클릭).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도서를 읽거나 선생님이 추가로 뽑아주시는 예상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상도중 김정민 선생님은 "민주평통 기출 예상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조언했다. 물론 평소 관련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말도 함께였다. 포항여중 김천자 선생님은 "예상 문제를 주면 학생들이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모둠끼리 토론도 하고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탐라중 김란영 선생님은 기본교재 외에도 중학생이 알아야 할 수준의 통일 관련 문제들을 골라 문제집을 나눠줬다고 했다. 또한 시사 문제도 의외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신문 등에 게재된 관련 용어도 눈여겨 볼 것을 당부했다. 진주동명중 김경남 선생님은 '북한바로알기' 책자를 권장했고 서일중 유양순 선생님 '한국사편지'라는 역사책을 읽어주며 눈높이에 맞게 역사 흐름을 짚어내는 교육을 평소에 병행해왔다고 말했다.



### ☆☆ Tip3. 족집게 과외

## 그룹스터디에 족집게 과외까지!

배영고 강혜지 선생님은 일명 '통일골든벨 족집게 과외' 이야기를 들려줬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고 3학생이 대회 당일 아침에 기숙사에 있는 후배들을 불러모아 2시간가량 족집게 특강을 했다는 것. 그 학생은 전년도에 대회에서 2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배영고는 지난해 수상학생도 많았다. 강 선생님은 출전경험이 있는 선배나 한국사능력시험 급수가 높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도중 김정민 선생님은 스터디를 권장했다. 출전하는 친구들끼리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3주정도 스터디를 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문답식으로 서로 질의 응답을 하거나 각자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서일중 유양순 선생님도 학생들을 그룹을 묶은 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문제를 내고 맞추는 연습을 했다. 포항여중 김천자 선생님은 역사-통일 관련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자세히 알아가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대회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 ☆☆ Tip4. 대회당일

## 즐긴다는 기분으로 침착하게 임해야

처음 대회에 출전한 아이들은 TV에서만 보던 골든벨 대회 세트장의 웅장한 규모에 놀라고, 라이벌 학교에서 모인 애들과 대면하게 되면 살짝 기가 늘리는 경우가 있다. 전남고 정지영 선생님은 "생각보다 대회 규모가 커서 긴장했지만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며 편안하게 임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했다. 또한 침착함과 순발력, 운동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차분하게 풀어야 알고 있던 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경주고 박경록 선생님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마음 놓고 즐기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 전남고등학교



▲ 전북배영고등학교



▲ 경주고등학교



중학생퀴즈왕이 끝나고 난 뒤 서일중학교에서는 떡 잔치가 벌어졌다. 유양순 선생님은 “학생중에 상을 받고 싶다며 욕심내는 친구들이 ‘우리가 상을 받으면 학교에서 떡 해먹자’고 했는데 진짜 특별상을 받아서 그 상금으로 전교생과 떡을 해다가 나눠먹었다. 유 선생님은 다들 ‘뭐 하나라도 즐겁게 배우고 오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행사에 호응이 높았으며, 전년도에 안타깝게 탈락한 아이들은 ‘이번에 나가게 해주시면 두배 세배로 잘 할게요’라고 약속하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는 중이라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전남고 경제동아리에서는 두 명의 학생이 KBS본선에 진출했고 TV에 친구 얼굴이 나오는 걸 보기 위해 다 시보기 동영상을 다 같이 돌려보기도 했다. 또한 대회 참가 후 학생들은 탈북친구들과 숙소에서 이야기도 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의 소감문을 써내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듯 재미있게 대회를 치렀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참 많다고 입을 모은다. 포항여중 김천자 선생님은 “교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읽고 배우는 통일교육보다는 와글와글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통일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어교사인 김 선생님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는 6월 백일장을 통일글짓기 대회로 열 계획이다.



▲ 서울상도중학교



▲ 제주탐라중학교



▲ 포항여중학교

“틀린 문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탐라중 김란영 선생님은 “단순히 상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OX방식으로 진행하니까 스릴도 있고 같은 또래 애들이 모여 가수들 공연을 보며 함께해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학교에서 역사나 통일에 대해 공부할 땐 와 닿지 않지만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주동명중 김경남 선생님은 “참여한 애들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을 알수 있었다”며 “통일에 무관심하던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고 양원철 선생님은 대회 당일 탈락한 학생들이 풀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내년에도 또 하는 거 맞죠?’라며 올해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대견했다며 “아이들이 이 대회를 통해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기자회견>



## 북한의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생일· 결혼 선물은?

글\_문 경 근(서울신문기자)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의 우애를 강조한 기념일들이 유독 많아서다. 가족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요즘같이 개인의 삶이 최우선인 사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새삼 확인케 해주는 시간이기도 더욱 그렇다. 북한에서도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날들을 정해 기념하고 있다. 특히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그 기념일을 맞는 방식도 다양하고 솔직해졌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핸드폰과 금은 반지, 기타가 인기고, 선물의 개념에도 보다 경제적 잣대가 가미됐다.

## 북한도 어버이날이? 11월 16일은 '어머니날'

남한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북한에서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국제부녀절'이라 부르며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왔지만, 이에 더해 최근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다. 11월 16일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연설한 날로, 2012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날을 '어머니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했다. 기념우표를 보면 어린아이를 보듬고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표 맨 윗부분에는 '어머니날'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11월 16일이 적혀 있다.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기념일들은 그 자체가 이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머니날'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두고 북한 주민들은 휴일이 하나 늘어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반응이다. 아직 남한처럼 기념일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절', 선생님께 선물드리는 풍습 확산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미풍양속은 남북한 모두 마찬가지다. 북한도 한국의 '스승의 날'(5월 15일)과 같이 교육절(9월 5일)을 정해 스승의 존재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전해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존경의 마음보다 물질이 앞서는 것 같다.

북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절을 기념해 학생들이 담임선생이나 특정과목(영어·중국어·수학 등) 선생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확산됐다. 학부모들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지만 혹여 자녀들이 차별대우를 받을까봐 남만큼 해주려고 한다. 초·중·고 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교사(또는 교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과목선생에게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북한 신의주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탈북자 강명석(남·52) 씨는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교육절이 있는지 잘 몰랐다. 특히 나홀 후가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교육절은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국경을 통해 중국계 밀수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선물 규모도 커졌다. 각 시·도마다 영재들을 뽑아 교육하는 제1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전기밥솥, 녹음기, 전기다리미, 옷감 등 가정에 필요한 제품을 선물로 준비한다. 소학교의 경우 학부모 회장이 알림장을 들리면 학부모들은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한다. 보통 맛내기(미원), 쌀, 옷감, 식용유 등이 주를 이룬다.



강 씨는 "2000년대부터 학생들과 부모들이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작게는 양복지 한 벌, 크게는 냉장고도 선물하는데 나는 녹음기를 받은 기억이 난다"며 "교원들도 다음 날이면 선물 받은 것을 자랑했다"고 설명했다. 선물이 교사 사이에서 문화로 고착화 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일부 탈북민들은 전했다.

2012년 탈북한 나성일(남·43) 씨는 "남들이 다 내는데 나는 낼 것도 없고 돈도 허락지 않아 자식을 위해 오래 전에 보관하고 있던 양복지 한 벌을 아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교원이 '시기가 지난 양복지로 무얼 만들겠는가'라며 되돌려 보내 섭섭했다"고 언급했다. 2011년 탈북한 박영희(50) 씨도 "자식을 잘 가르쳐 달라는 부모들의 작은 성의마저 무시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하는 교원들이 알미웠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어 분담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원들이 교육절에 노골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이 깊다. 실제 교원들도 먹고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장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1997년부터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교원들도 장마당으로 나와 살 길을 찾거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 사욕을 챙기고 있다.



## '국제아동절' 다채로운 어린이 관련 행사 열려

5월 5일은 남한 어린이들이 '우리들 세상'을 맞는 어린이날이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른 평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따로 있을까.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어린이날'은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기념일로 6월1일 '국제아동절'을 지낸다.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기념일로 제정한 데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회주의권의 명절이다.



매년 국제아동절이 되면 북한은 평양 만경대유회장에서 당정 간부들과 평양 주재 외교관들, 해외동포 등을 초청해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연다.

지난해 국제아동절에도 평양에서는 친선모임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공연과 씨름, 달리기, 공 차넣기,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가 열렸다. 어린이들은 학예회를 통해 며칠동안 연습한 노래와 춤, 기악 등을 선보이고 체육·오락 행사를 즐긴다. 단체로 인근 공원이나 경치 좋은 곳에 소풍을 가는 경우도 있다.

남한처럼 공휴일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휴가를 내고 자녀의 학예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고기나 과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특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국제아동절이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명절이라면, 남한의 초·중 학생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위한 날도 있다. 북한은 만 7~14세 학생이 가입하는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도 어린이 명절로 지낸다.

## 북한 연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선물 '휴대전화', '반지'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젊은이들이 가장 시체 멋으로 여기는 결혼선물은 가락지 보다 휴대전화"라고 전했다. 즉 북한에서 가장 유행하는 결혼선물이 휴대전화이고 그 다음이 반지인 것이다. 결혼 예물 중 아파트가 가장 큰 선물이겠지만 형편이 못되는 계층의 경우 휴대전화를 가장 값진 선물로 여긴다.

이어 데일리NK는 "휴대전화는 북한 젊은 세대들의 상징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있으면 연인들 사이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사려면 일반 주민의 연간 수입의 5분의 1이 든다. 북한 국산 휴대전화 아리랑스마트폰은 가격이 400달러 정도다. 현재 북한에는 약 25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총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좋은 스마트폰이 부의 상징처럼 자리하면서 연인들 사이에서는 예물 개념으로도 여긴다고 탈북민들은 전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타' 선물 인기



북한 소학교와 중등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기타배우기' 열풍이 일어나면서 기타 선물도 인기다. 특히 남녀사이에서도 '선호'한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소학교, 중등학생들 사이에서 기타 배우는 바람이 늘어났다"면서 "기타는 이전부터 대중악기로 사랑을 받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타를 잘 치면 '스타' 대접을 받는다"고 전했다.

기타를 생산하는 곳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만경대선물악기공장'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악기는 기타를 비롯한 손풍금, 가야금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북한 최대의 국영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에서도 소량이 판매되었지만, 평양 출입 제한으로 지방 주민들은 기타구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980년대까지 기타를 소유한 주인은 매우 드물었지만, 90년대 장마당이 생기면서 개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지만 북한에서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학생들은 기존에 기타를 취미나 재능을 위해 배웠지만, 지금은 인기를 위해 선택한다"면서 "청소년들 속에서 문화로 자리한지는 오래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노래방이 들어섰지만 아직도 기타는 젊은 세대들의 낭만을 설명하는 주요한 문화 통로다. 그래서 기타는 고가임에도 선물의 가치가 높아, 주로 연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2008년 남한에 와서 올 1월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A씨. 임기제이고 탈북민을 배려한 전형이어서 '운 좋게'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국어 또한 유창한 실력파다. 직장인 새내기가 된 A씨는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 ♥ '헤어숍' 두고 미용실 찾아 삼만리

A씨는 지난해 가을 미국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대화 도중 가끔 원어민 같은 영어발음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7년 전 막 남한에 왔을 때는 영어가 매우 생소한 언어였다.

“머리를 손질할 때 북한에서는 미용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밖에 나가 미용실을 찾았는데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작정 걷고 또 걷다가 도저히 미용실을 찾지 못한 A씨는 지하철을 타고 '변화가'라고 들었던 왕십리역까지 나온 뒤에야 겨우 가게를 발견했다.

“그때도 간판보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미용하고 있는 게 밖에서 보이기에 들어갔지요. 나중에 외래어가 좀 익숙되니까(익숙하니까) 집 근처에 헤어숍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헤어숍이 두 개나 있었는데도 당시에는 못 본 거죠.”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영어 때문에 눈물을 펄펄 쏟은 적도 있다. 전공과목 중 하나인 생물학 수업의 시험자료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파워포인트로 25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슈가, 글루코, 리피드가 어찌고 저찌고 고부랑 글씨를 보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든 A씨는 아연실색을 했다. 질문 부터가 전부 영어였던 것.

“자료는 다 외웠는데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2주 동안 그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답을 못 쓰고 나간다는 게 용납이 안됐어요.”

그래서 A씨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해석해 달라고 교수님께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엔 수업시간이 아니라서 설명해 줄 수 없다’며 그냥 최선을 다해 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거의 백지로 낸 뒤 나와서 두 시간 쯤 운 것 같아요.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때 외운 게 전공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 되더라고요.”

## ♥ 저 가시나, 어디 감히 남자를 박나?

A씨는 탈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엄마 대신 아빠와 남동생까지 세 가족의 살림을 도맡아 했다. 대학까지의 통학거리가 먼 데다 실험실까지 다녀야 해서 새벽에 집을 나서곤 했는데, 돌아와서 보면 집안일은 전부 A씨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아침 점심 먹은 설거지는 그대로고 짐청소도 안돼 있는 데다 빨랫감도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곤 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울면서 하소연했죠. 남동생에게도 ‘한국에서는 이러면 여자친구도 못만나,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따로 있냐’ 하면서 3개월을 싸웠더니 이젠 좀 나아졌어요.”

A씨는 남한은 그래도 남녀평등 의식이 보편화 돼 있는 거라며, 북한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정말 강하다고 말한다. 여자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란다(웹진 12호에서는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내용이 나간 적이 있다, ▶바로가기 클릭).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자들은 하루 종일 장마

당에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오면 밥하고 육아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서 낮전등이라고 불려요. 필요 없는 전등이란 뜻이죠.”

이혼을 하는 가정은 없는지 물었더니 요즘 북한에서도 이혼을 하긴 하는데 친정에 가 있으면 옆동네에서 이혼했다고 눈길(눈치를) 줘서 힘들다면서, ‘모든 걸 다 감수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A씨의 아버지는 가끔 남한의 TV를 볼 때 불쾌해 하실 때가 있다.

“얼마 전 가족들이 모여 TV 드라마를 보는데 여자가 남자를 한 대 박은 거예요(때린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저 가시나 어디 감히 남자를 박냐고, 맞으면서 사는 한국 남자들 진짜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자매님’ 친근한 어투 이상했지만 이전 이해해요

A씨는 교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됐고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다. 남한에서도 잘 알려진 꽤 큰 교회였는데, 특히 크리스마스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신도들을 보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군데 모일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A씨에게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교회식 친근함’이다.



“자매님 잘 왔어요~ 하며 엄청 친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참엔 그런 모습이 진실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낯선 곳이니까 경계를 하며 지내다보니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올라치면 ‘나한테 뭘 바라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곤 했다고. 그런데 더 이상했던건, 교회에서 만나면 ‘자매님~ 자매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주중엔 연락 한 번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반가운 척 하고 잘 왔다고 하시더니 연락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교회를 가면 또 자매님~ 자매님~ 그러시거든요. 그땐 이상하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자매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요. 그냥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던 거죠.”



2008년 당시 자신에게 진로 지도를 해주던 한 교인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남한에 와서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반발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

“길고 짧은 건 대보야지, 북한사람은 안 된다는 게 어딴데요?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라며, 제가 막 화를 냈었어요.”

A씨는 북한에서 공부를 꽤 잘했지만 ‘뇌물을 쓰지 않아서’ 진학에 실패했다고 한다.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 중 부모가 돈을 쓴 애들은 다 의대에 갔다는 것이다.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농삿일을 돕거나 미싱을 배우면서 A씨는 서러운 마음에 문턱에 앉아 영영 울었기도 했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또 한번 이를 악물고 의대 진학에 도전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충고해주신 건데 그때는 그 분이 북한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일찌감치 포기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솔직히 남아요.”

그래도 현재 공무원인 A씨는 구직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생각보다 빨리 취업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말 졸업한 후 여러 곳에 면접을 다녔지만 번번이 미끄러지기도 했었다.

“한국 사람들도 보통 취업하는데 일 년은 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탈북민에 결혼까지 해서 취업에 더 물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북한이탈주민들을 특채로 모집하는 기회가 있어서 채용될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공직자로서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게요.”

<글. 기자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경북 포항시협의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열어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15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를 4월 26일 개최했다. 포항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외국인 등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마라톤대회는 종합운동장을 출발점으로 환호공원을 돌아오는 하프코스, 송도해안도로에서 반환하는 10km코스, 섬안큰다리를 돌아오는 5km 코스 등으로 펼쳐졌다.

## 중국 상하이협의회, 윤봉길 의사 유적지에서 '통일골든벨' 개최

중국 상하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4월 11일 상하이 훙커우구 루선공원 안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 매현 앞마당에서 '제3회 청소년 통일축제'를 열었다. 루선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일본군 사령관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의거 현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상하이 외에 장쑤성 쑤저우와 우시를 비롯한 중국 화둥지역 한국인 학생과 교민 등이 참가해 초·중·고등부 학생들은 통일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통일 골든벨' 행사에 참여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유라시아대륙 한민족 축제 참석



중앙아시아협의회(회장 이재완)는 5월 2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알파라비 국립대학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유라시아대륙 평화통일 기원 한민족 축제'를 개최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축제 부대행사로 열린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 심포지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갔고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북한도 이제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핵과 인권, 개혁·개방 문제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 성북구협의회, '나라사랑 통일리더캠프' 개최





성북구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서울국학원과 함께 지난 4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통일리더캠프'를 열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명사초청특강, 북한 이해하기 퀴즈, 극단 얼썩-art 초청공연, 조별 브레인스토밍, 동기부여 강의, 통일하나되기 등이 진행됐다.

## 2015년도 2/4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제2/4분기 분과위원회가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대주제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4월 16일에는 통일교육분과위원회와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17일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회와 기획법제분과위원회, 20일 사회복지분과위원회, 21일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22일 인도지원인권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 23일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24일 청년위원회가 각각 열렸다. 민주평통은 이번 분과위원회를 마지막으로 16기 분과위원회 정책건의 심의 활동을 모두 마감하고, 토론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될 계획이다.

## 강원지역회의, 청년 통일토크 개최





강원 지역회의 청년위원회(부의장 조동용, 위원장 전제원)는 4월 30일 강릉원주대에서 청년위원, 대학생 등과 함께 '2015 강원지역 청년 통일토크'를 진행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통일토크에서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 출연진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미래 통일세대인 대학생의 역할에 대한 토론과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헌혈증서 전달식, 멘토가족지원 협약식, 탈북대학생 의료비지원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통일시대시민교실, 자문위원 연수 등**



▲ 서울



▲ 경남

4월, 각 지역별로 자문위원 연수가 활발하게 개최됐다. 4월 1~2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인천·대구·광주·경기·경남·제주 등지에서 각각 개최됐다.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광주

◀ 경기



▲ 경기 김포시협의회



▲ 전남 신안군협의회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조진남)는 4월 1~2일 관내 중·고교 교장과 윤리 및 사회과 교사,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워크숍'을 열었으며, 전남 신안군협의회(회장 표문철)는 4월 1일 압해읍 평생교육회원과 함께 '찾아가는 통일순회강연회'를 개최했다.



▲ 경기 평택시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강원 동해시협의회

7일에는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한인희)와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김화동)가, 8일에는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천규)와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최재경)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각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반병섭)는 같은 날 동해농협 주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 서울 강동구협의회



▲ 경기 수원시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10일에는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이종춘)와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정재규)가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9~10일에는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주부덕)가 '제1회 지역주민 평화통일 연수'를 개최했다.



▲ 경기 이천시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또한 13일에는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신현숙)와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가, 23일에는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와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가 각각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가 '2015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충북 진천군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 경북 상주시협의회



▲ 대구 지역회의

그밖에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4월 16~18일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일원에서 '자문위원 통일공감 워크숍'을 개최했고, 대구 지역회의(회장 박규하)는 4월 17일 '제24차 대구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제주 지역회의

대전 유성구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4월 1일 제주대학교 통일동아리 '好-Peace'와 제주한라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백' 학생,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는 3~4일 유성구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청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70주년 기획 '나라사랑 청소년 통일공감대회'를 열었다.



▲ 충북 보은군협의회



▲ 전북 장수군협의회



▲ 경기 여주시협의회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4월 10일 보은자영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 강사 초빙 '2015년 중고생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북 장수군협의회(회장 고강영)는 16일 장계중학교에서,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오찬용)는 17일 경기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9~10일 셋별중학교 학생들과 판문점, 제3땅굴, 국회, 증권거래소 등을 방문하는 '통일 공간 청소년 분단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대구 북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이광우)는 3월 30일 대구강북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에 신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물품 나누기' 행사를 열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신방식)는 4월 4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고추장 담기 등 '통일로 함께 가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1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송암 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과 함께 전방견학 및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 경기 광주시협의회



▲ 대전 대덕구협의회



▲ 인천 부평구협의회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3일 북한이탈주민 및 광주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수목 정지조성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강덕구)는 15일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북한이탈주민 아름다운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손광천)는 17일 경찰서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플라워 교실'을 개최했다.



▲ 경기 고양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충남 청양군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는 18일 충북 단양군 일원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어깨동무하기 멘토자문위원과 멘티 학생들이 봄을 맞이하여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진주성에서 쓰레기 줍기 및 정화활동을 했다.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8일 칠갑산도립공원에서 나라사랑과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통일기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충북 충주시협의회



▲ 전북 익산시협의회



▲ 강원 지역회의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3월 28일 호암체육관 및 호암지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 시민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강호현)는 4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익산시민들과 함께 '통일 등반대회'를 열었으며 강원 지역회의(부의장 조동용)는 6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원도민일보, 고성군, 동부산림청과 함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식목행사를 열고 '평화통일영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남 창녕군협의회(회장 황규태)는 창녕 화왕산에서 여성분과주관으로 창녕군여성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영원 걷기대회'를 열었다.



▲ 경남 창녕군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이명식)는 9일 충주시민들과 함께 '2015 충주시민 도전 통일골든벨'을 개최했으며 경북 지역회의(부의장 김종원)는 15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화 어우르기'행사를 열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강동일)는 2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며 울돌목의 군집기를 교체, 계양했다.



▲ 경북 지역회의



전남 해남군협의회 ▶



충북 청주시협의회 ▶



◀ 대전 지역회의

▲ 세종 지역회의

세종 지역회의(부의장 오영철)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를 지난 21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으며 대전 지역회의 여성위원회(부의장 박성배, 위원장 권응매)는 28일 다양한 연령대의 15개 팀이 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펼치는 '통일송 개사 경연대회'를 열었다.

### 지역 봉사활동



▲ 인천 계양구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4월 3일 전 자문위원이 함께하는 '통일공감 식목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김운오)는 10일 칠곡군 사랑의 집에서 지역의 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무료급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우보현)는 11일 반송3동 통일동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3회 평화통일 풍선날리기'를 개최했다.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17일 여성분과위원 및 관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직접 빵을 만든 후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간식 봉사와 손맛사치, 노래 봉사를 펼쳤다.



▲ 충남 공주시협의회



▲ 충남 태안군협의회



▲ 충북 증평군협의회

충남 태안군협의회(회장 박두교)는 4월 9일 임실 및 화순 현충문 등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5 지역주민 통일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김장웅)는 4월 10~12일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2015년 평화통일염원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서울 강북구협의회



▲ 경기 파주시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승대)는 14일 임원단과 함께 국립 4·19민주묘지와 순국선열 묘지를 참배했고,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17일 강릉 통일공원으로 '제16기 자문위원 통일현장 안보견학'을 다녀왔으며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강대인)는 20일 계룡대, 대전국립현충원에서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확립을 위한 '안보현장견학'을 개최했다.

▼ 서울 노원구협의회

부산 북구협의회 ▶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직주대행 정진수)는 4월 24일 춘천지구전적기념관으로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을 개최했으며 부산 북구협의회(회장 조춘자)는 23~24일 시민들과 함께 판문점 일대에서 '광복 70주년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베트남협의회 하노이지회(회장 전종규, 지회장 김정인)는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 추도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인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혼백을 기리며 그들의 순국이 헛되지 않게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남유럽협의회 스페인지회(회장 최병원, 지회장 신현승)는 3월 28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3월 28일 바로셀로나한글학교에서 제3회 통일옹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 학생 부문에서는 조민이 양이, 외국인 학생 부문에서는 아란차 라헬 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통일의를 함양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바로셀로나한글학교에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중동협의회(회장 박정길) 쿠웨이트 분회는 4월 25일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쿠웨이트 분회는 2월 통일 강연회에 이어 통일골든벨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인 사회 초, 중 교교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며 평화 통일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쿠웨이트 분회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이를 연례행사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민균 학생이(American School of Kuwait 고 3) 중고등부 사무처장상을 수상했다.

## 중동협의회, 요르단에서 강연회 개최



중동협의회 요르단분회(분회장 이지영)는 4월 28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요르단대학교에서 요르단 대학교 관계자와 교수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한국 소개를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지영 분회장은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 역사, 문화 등 소개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을 어지럽히던 미풍도 자취를 감추고,  
환하게 마음에 불을 밝히던 벚꽃 잎들도 저버린 5월. 봄은 벌써 등을 돌린 채 저만치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가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이별을 준비하고,  
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애가(哀歌)가 상처를 자꾸 해집는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  
떠나가는 모든 것들을 물 흐르듯 가만 내버려두어야겠다.

## 고통 속에서 산화한 이들을 기억하는 '해미읍성'

스러져가는 봄빛을 쫓아, 떠나간 이의 그림자를 밟으며 충남 서산으로 향한다. 어쩌면 봄은 이별하기에 좋은 계절인지 모른다. 찰나의 아름다움과 소멸의 덧없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온 몸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봄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맨 처음 내려앉은 해미읍성에서 시작되었다.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부터 세종까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기 시작한 성이지만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이후 천주교의 성지로 더 잘 알려지게 됐다. 100여 년 간 천주교 신도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당했고, 특히 병인박해 때는 무려 1천여 명이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죽음을 맞았다. 어깨에 초록색 담쟁이덩굴을 두른채 견고하게 서 있는 해미읍성의 정문, 진남문으로 들어선다.



▲ 해미읍성 전경

성 중앙에는 600년을 살았다는 호야나무(회화나무) 고목이 있다. 150년 전 이 고목에는 순교자들의 머리채가 철사줄에 매달려 있었다. '자리개질'이나 '진돗방'이라는 말이 피비린내를 품고 있다는 것도 이곳에서 알게 됐다. 신도들을 타락하듯 자리개질로 머리를 메쳐 살해하거나 좀 더 수월하게 죽이기 위해 '돗방'에 생매장을 감행했던 이들이 그처럼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죽는 순간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다 고통 속에서 산화한 이들은 모두 영생의 길로 안녕히 걸어간 걸까.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이곳에 오래도록 남아 돌처럼 딱딱해진 가슴을 갖고도 아직 새싹을 틔워내고 있는 호야나무 고목은 알고 있을까.



▲ 해미읍성 객사



▲ 수령 600년된 호야나무 고목

## 마음을 씻고 들어가 마음을 열고 나서는 '개심사'

발길이 처음부터 서산을 향했던 것은 개심사(開心寺) 때문이었다. '마음을 여는 절집'이라는 그 이름이 좋았다. 개심사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그 기대감을 더했다. 운산면 신창리 상왕산 깊숙이 자리한 개심사에 닿기 전 만난 건 강원도 대관령목장을 닮은 서산목장이다. 여기저기 풀꽃으로 치장한 봉긋한 언덕 위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 떼가 정겹다. 조금 더 지나 푸른빛의 신창저수지를 끼고 돌면 솔 숲길에 다다르는데, 세심동(洗心洞), 개심사입구(開心寺入口)라는 표석들이 눈에 띈다. '마음을 씻는 굴짜기'와 '마음을 여는 절'. 그 표석들이 시키는 대로 미련 가득한 마음을 맑은 굴짜기에서 씻어낸 후, 마음 열 준비를 하고 솔숲을 걷는다. 숲길에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진하게 묻어나오는 솔 향에 어지럽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낀다.





◀세심동(洗心洞), 개심사입구(開心寺入口) 표석들



▲ 물결처럼 휘어진 심검당(尋劍堂) 기둥



▲ 대웅전

작은 연못 '경지'를 넘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도로 괴로움이 없으며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안양루를 지나 마침내 해탈문 안쪽, 개심사로 들어간다.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서둘러 꽃잎을 떨구고 있는 겹벚꽃. 개심사의 명물인 청벚꽃은 이미 쳐버리고 없었다. 꽃심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서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벚꽃은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석탑, 대웅전, 심검당, 무량수전 등이 모여 있는 '지나치게 작은' 절집 마당 앞에 황량한 심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여느 유명 사찰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꽃의 향연'이라는 봄의 절정마저 막 지난 개심사의 첫인상은 그랬다.

하지만 오래된 목조불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는 대웅전을 지나 시선은 개심사의 '진짜배기' 심검당(尋劍堂) 기둥에 가서 머무른다. 심검당은 스님들의 요사채로, 그 지붕을 단청도 없이 제멋대로 흰 나무들이 떠받치고 있었다. 둘러보니 심검당 뿐 아니라 무량수각, 범종각, 명부전 등 개심사의 다른 전각들도 모두 자연이 주는 재료 그대로의 휘어지고 구부러진 목재를 사용해 지어졌다. 획일화되지 않고 모두 제각각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고 서 있는 기둥이 오히려 더 멋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맞다, 나무가 곧게 자란다는 건 편견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물과 바람과 공기와 햇볕에 따라 제 모양을 바꾼다. '울곧게, 바르게'라는 단어 안에 길들여진 마음 한켠이 느슨하게 이완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마음을 연다는 것,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 아직 남은 미련쯤 일부러 내다 버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떠나가는 것들에 굳이 마음을 여밀 필요가 있을까.



## 햇살아래 눈부신 미소, '서산 마애여래상존불'

가끔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다. 머리를 토닥이며 말없이 웃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발길을 옮긴 곳은 서산 마애여래상존불이 있는 운산면 가야산이다. 마애불은 자연암벽에 선을 새겨 넣거나 도통하게 솟아오르도록 다듬어 만든 불상을 말하는데, 가야산 기슭 층암 절벽에선 3개의 거대한 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가운데 서 있고 좌측에 보살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이 조각돼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꺼낸 재미있는 이야기에 한바탕 크게 웃은 뒤, 아직 여운을 즐기는 것처럼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다. '백제의 미소'라 이름 붙은 이 표정은 계절에 따라, 해의 고도에 따라, 그리고 보는 이의 심경에 따라 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혼자 고독한 명상에 잠겨 있거나 위에서 근엄하게 내려다보는 불상이 아니다. 석가여래입상도, 양 옆의 협시불들도 모두 맘 좋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다정다감하고 유쾌하다. 그래서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 미소를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미소를 짓게 된다. 마음에 남은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듯 했다.



▲ 서산 마애여래삼존불



## 선상 횡집 늘어난 삼길포항에 하나들 불이 켜지면

해가 낫아질 때 좀 서산의 북쪽 바닷가로 차를 몰아 들른 곳은 '서산의 미항' 삼길포항이다. 북쪽에 점점이 흩어져 있던 대난지도, 소난지도, 비경도 등의 섬과 이름 없는 무인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둠 속에 제 모습을 감출 것이다. 가까이 항구 주변에, 그리고 멀리 대산공단에도 불이 켜지면 바다 위에 비친 물빛들이 저녁나절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화려한 야경의 군무를 시작할 것이다. 우력이나 놀래미의 입질을 기다리느라 항구 주변에 늘어난 낚시꾼들은 번번이 망둥이만 건져올리는데도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않는다. 삼길포항 선착장 아래, 좌우로 죽 늘어난 선상횡집에서 왈차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막 썰어낸 싱싱한 회에 소주 한 잔 나누며 조용히 그 소란에 묻히고 싶은 항구의 풍경.



▲ 선상 횡집



▲ 삼길포항

5월 초 아직 바닷바람이 차다. 바다 색깔이 점점 짙은 빛으로 변한다. 마음을 씻고 열어도 미련은 가시지 않는다. 잊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닌 것도 잘 안다. 애인에게 날마다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시(詩), 이성복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잘 있지 말아요 그리운...' 마음이 놓아주지 않는 한 사랑은 진행형이다. 봄이 가고, 꽃이 져도 계속된다. 주변에 있는 자갈 하나를 집어들어 가만히 있는 애먼 바다에 힘껏 던져본다.

# 전 세계 야구인의 꿈의 리그, 통일한국프로야구

이택중



헉!! 전 세계 유명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진출하고 싶어하는 '꿈의 한국프로야구 리그 경기', 그것도 개막전을 간다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아들 우상이 지금은 평양스라소니팀 감독으로 있는 나현진 선수잖아요. 내일 개막전이 평양스라소니와 서울독수리 전이라고 가서 사인 받겠다고 야구공까지 따로 챙겼던데요?

허걱!! 나현진 선수??  
여보오옹~ 나도 내일 회사 휴가내고 애들 따라가면 안될까?  
한국프로야구 개막전을 직접 보는 건 내 일생일대의 꿈이라고!!



에휴! 내가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우지 진짜!  
좋아요. 그럼 올 휴가는 그냥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요.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의  
최고 인기 음식  
속도전 떡

속도전 떡은 '속도전가루'를 물에 반죽해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까닭에 속도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야말로 최고의 '속도'가 맛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선 속도전가루를 '강냉이변성가루'라고도 하는데 옥수수를 높은 압력과 열 속에서 찌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따로 익히지 않고도 떡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요리재료

요리재료 : 옥수수가루 300g, 볶은 콩가루 80g,  
물 150cc, 설탕 1티스푼, 소금 1티스푼



 요리방법



1 옥수수가루를 볼에 담고 설탕, 소금을 넣는다.

2 ①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가며 익반죽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식감을 더 하기 위해 계속 치댄다.



3 완성된 반죽을 한입 크기로 떼어낸 뒤 손에 굴려 동그랗게 만든다.



4 ③에 콩가루를 굴러가며 묻혀내고 보기 좋게 그릇에 담아 상에 낸다.

요리연구가\_나 유 신

## 북한의 인민 음식 속도전 떡

북한에서는 워낙 옥수수를 많이 먹다보니 옥수수 가공 기술과 함께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 발달해 있다. 속도전떡 외에도 옥수수 알갱이를 삶아 만든 옥수수밥, 옥수수 가루로 반죽해 면을 만드는 옥수수국수, 강냉이 설기떡, 강냉이 꿀무떡,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평양온면까지 북한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2020년 8월 15일. 남북통일 후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광복절 아침이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직은 남북 주민 간 자유로운 왕래는 제한되어있지만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과거 남북이 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마주했던 DMZ 서부전선 지역 파주와 개성 중간지점에 조성된 통일공원에서 남북 사람들이 모여 통일 1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진다기에 가족들과 함께 통일동산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북주민들 중에서 광복절 행사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응모해서 무작위로 추천하는 통일이벤트에서 운 좋게 우리가족이 당첨이 되었거든요.

차를 타고 통일로를 달려 DMZ지역에 가까워지자 한참 철도공사를 하느라 부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북 분단과 더불어 끊어진 경의선이 복원되고 고속철도가 개성을 지나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1년만 더 있으면 개통한다며 아들 녀석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 배낭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뜬 모습으로 그날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철도공사 맞은편 도로로는 화물차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북한으로 향하는 자재와 인력들로 북한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기업들이 운영하는 공단들이 수 십 개가 새로 생겨났고 도로포장과 전력, 통신망, 상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며 침체됐던 건설경기를 시작으로 '통일대박경기'라고 불리는 호황이 경제 전반에 일어나서 요즘은 건설회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대규모로 늘리느라 불과 5~6년 전만해도 취업난이라 불리던 시절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데가 너무 많아 고민이 될 지경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대한 지원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취업도 힘들어 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비롯하더라도 하듯 남과 북의 경제는 시너지효과를 내며 동반 고도성장을 이루어내며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다'는 말을 외국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이렇듯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통일 직후 북한주민들의 남한으로의 대거 이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동을 통제하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멘 소리도 북한 주민들에게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이 역으로 남한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남한 내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는 데는 남북 주민들의 인내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차는 어느새 통일공원에 도착했고 우리 가족이 차에서 내려 행사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통일이 되긴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만큼 8도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익숙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사투리는 물론 TV에서나 들어봤던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까지... '이렇게 우리 겨레가 함께 모이기까지 참 많이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광복의 기쁨은 나눈 오늘. 통일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남과 북의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통일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가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일이 된다면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제 협력과 인적교류가 금물살을 탈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개성공단과 파주 국제평화공단의 조성, 금강산 관광 등 기초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통일 후를 준비하기 위한 여행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 벨트 조성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상품 수출증가와 함께 물동량 교역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산림황폐화로 인한 토양유실 문제로 가중되고 있는 식량난도 환경과 학계 그리고 민생협력 등을 통해 기아로 고통 받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는 세계가 인정하는 천연자연보호 구역으로서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평화의 상징'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역사가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그간 미진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오류가 수정되면서 고구려 역사 왜곡의 중국, 임나일본부와 식민사관의 일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역사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적 자부심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의 재확인을 통해 통일-중국 간 문제가 되었던 백두산 분할문제나 간도 영토 회복 등의 문제도 차차 논의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함께 동질화 되고, 저성장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은 북의 천연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통일이 될 것이라 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소설 형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통일한국의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있다. 이에 어지간한 국내기업들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으로 대한민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5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국내 대기업들은 모두 세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통일한국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애플과 소니 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통일한국은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남한만 따로 국가대표를 운영할 때에는 세계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통일한국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세계 5위의 강국이 된 것이다. 통일한국은 FIFA 월드컵을 다시 한 번 개최하며 2002년 월드컵에서 이루었던 4강을 재현해 냈다. 세계는 통일한국의 열정과 결집력과 단결력을 보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을 포함해 높고 깊은 산들이 수 없이 많다. 통일 한국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리조트와 레저스포츠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면서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관광 수입은 통일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인들이 한국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 되었다. 나는 최근 북쪽 지역의 많은 산들을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 백두 대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은 통일이 되기 전에 쏟았던 국방예산을 사회 복지예산에 투입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3위'로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반가운 일이 하나 더 있다. 통일한국의 모든 문화가 세계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통일한국의 음악, 문학, 영화, 선비사상 등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5명이나 나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님도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당당히 국제어가 되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다. 국제회의에서는 한글로 말해도 모두가 통한다. 세계의 모든 대학에 한글학과가 설치되고 한글은 명실상부한 국제어가 되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통일한국을 서로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UN에서도 상임이사국이 되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다섯 단어로 말해요!

[예시]

√남북이 √함께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섯단어(어절)로 이루어진 짧은 글짓기를  
해주세요~~



- |              |                          |
|--------------|--------------------------|
| <b>응모기간</b>  | 2015. 05.15 ~ 2015.06.07 |
| <b>응모방법</b>  |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
| <b>당첨자수</b>  | 5명                       |
| <b>시상내역</b>  | 문화상품권 2만원                |
| <b>당첨자발표</b> | 6월 셋째주                   |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온 국민과 함께하는

# 역사통일 골든벨

## Quiz 1차

5~6월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통일 골든벨' 시도대회가 개최됩니다. "바로알자 우리역사! 열어가자 행복통일!"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민주평통 역사통일 골든벨!** 벌써부터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6주에 걸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퀴즈도 풀고, 경품도 받고~!



**Tip** 6회 모두 참여하신 분께는 대박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1차 Quiz

다음에서 설명하는 철도는 무엇입니까? 이 철도는 1906년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안주-신의주에 이르는 한국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철도입니다. 경부선과 함께 남북을 종단하고 중국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①경춘선 ②경의선 ③경인선

힌트 보기

**응모기간** 1차 퀴즈 - 2015.5.12 ~ 2015.5.17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정답을 써주세요.

**일반경품** 1차 퀴즈에 응모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도너츠 구매권(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대박경품** 1차 ~ 6차 퀴즈에 모두 응모하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통일에 물들다'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bee21@naver.com	리쯔
2	**jung605@naver.com	정도령
3	**lwoo@naver.com	이일우
4	**at4773@naver.com	복
5	**monism@naver.com	아몬드



### '틀린 그림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cca0708@naver.com	취락
2	**y8595004@naver.com	불꽃소년
3	**33535@naver.com	시앙
4	**y4421@hanmail.net	나라사랑
5	**000hk@hanmail.net	하안구름
6	**s055@daum.net	난국시대
7	**hy0326@naver.com	스마일포포
8	**n1594@nate.com	통일통일
9	**ngupne@naver.com	은경
10	**sh0328@nate.com	방장군
11	**go1004@hanmail.net	통일대박쭈
12	**066652570@hanmail.net	nrrkkk

13	**sskcjstk@naver.com	칸나
14	**nbeejoq@naver.com	희우
15	**91126@naver.com	통일은사랑입니다
16	**qc100489@naver.com	통일아사랑해
17	**o0726@naver.com	김연경
18	**h0509@naver.com	미르
19	**raangabba@naver.com	사랑아빠
20	**gh8717@naver.com	전북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s055@daum.net
2	**y5167@hanmail.net
3	**tistlyj@hanmail.net
4	**sporter@hanmail.net
5	**1004jt@naver.com
6	**dbrl@naver.com
7	**e6956@hanmail.net
8	**jk0820@hanmail.net
9	**riljeon@naver.com
10	**1982ko@naver.com
11	**sgidal84@naver.com
12	**tivefox@naver.com
13	**msook2215@hanmail.net
14	**mk28@hanmail.net
15	**kiimsj@naver.com
16	**marche5297@hanmail.net
17	**dhlee@naver.com
18	**2118062@naver.com
19	**yo2510@naver.com
20	**sh625@naver.com
21	**neunmi@nate.com
22	**jndg@naver.com



23	**j2100@daum.net
24	**msil3445@naver.com
25	**dnjs5617@naver.com
26	**uesky05h@naver.com
27	**ongjaeone@hanmail.net
28	**xfear@nate.com
29	**nk7741@nate.com
30	**kjee@msn.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